인 사 말

이 옥 환
(제17대 편집위원장)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 교수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제 17대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봉사를 맡게 된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 이옥환입니다.

먼저, 국내외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afe Food의 17권 3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afe Food를 통해 국내 식품위생안전성 관련 최신 자료가 공유되고 산학연관 협력 관계가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무한히 기원드립니다. Safe Food와 함께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서 출판하고 있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는 국민의 식품위생 및 안전성 등에 관련된 학문과 과학기술에 대한 장을 마련하고자 1986년 1권 1호를 창간하였고 2022년 현재 37권 4호 출판을 앞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식품위생 및 안전성 관련 학술지입니다.

우리 학술지는 2006년도 KCI등재후보지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10년부터는 KCI등재지로 인증된 후, 202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과학기술총연합회 학술지평가를 통해 학술지 발간에 대한 지원금을 선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술지는 지속가능한 국제적 학술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하여 SCOPUS 등재를 목표로 제16대 편집위원회(오덕환 위원장)에서 SCOPUS 등재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현재까지 SCOPUS 등재를 위한 우수한 논문 출판, 선진화된 편집체계 구축, 인용도 증진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7월에 발표되는 KCI IF(impact factor)가 2019~2021년 기준으로 0.39→0.50→0.62로 3년간 증가되었고 농진청영향력지수 또한 45.164(IF=0.50, 2020년 기준)에서 내년 초(IF=0.62, 2021년 기준)에는 더 높은 농진청영향력지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술지가 성장 할 수 있도록 학회지 원고를 투고해 주시고 심사로 수고해 주시는 학회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편집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회장님, 상임이사회 임원님, 사무국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2인) 및 편집간사(8인)와 사무국 편집담당자(1인)를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학술지 편집 업무를 조금 더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영문투고시스템이 내년 초까지 구축되면 외국인들도 우리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투고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적 수전의 학술지로 발돋움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학술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머지 않은 훗날에 SCOPUS 등재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